

서부아프리카로 보폭 넓히는 YF마인드교육...협력체계 구축

박옥수 목사, 서부아프리카 3개국 순방 성과

가나·베냉·코트디부아르서 각국 정상 릴레이 면담
마인드교육·가칭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등 '순항'
YF-3개국, 청소년사업 우호교류 협력 의지 다짐

국제청소년연합(YF)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최근 서부아프리카(가나·베냉·코트디부아르) 3개국 해외순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박 목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각국 대통령, 정부인사, 사회지도층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마인드교육 추진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뤘다.

◇ 가나 대통령과 가칭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논의

박 목사는 지난 3월4일 아쿠포 아도(Nana Akufo Addo) 가나 대통령과 대통령궁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7년 전인 2017년 7월 첫 만남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박 목사는 아도 대통령에게 마인드교육에 대해 설명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아도 대통령은 YF활동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7년 만의 재회에서 박 목사는 가나 청소년들과 국민들의 마인드 함양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마인드교육의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또 청소년교육센터(가칭) 건립과 세부적인 교육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아도 대통령은 "제안한 프로젝트는 훌륭한 아이디어다. 가나 정부는 프로젝트를 적극 검토해 가능한 만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고부 장관이 이미 토지 문제를 처리하기 시작했다"며 "그가 필요한 모든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도 대통령은 추후 한국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 참석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박 목사는 정부의 교육 계획에 맞춰 일하는 한편, 민간 부문에서도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활동들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박 목사는 "가나 정부에서 땅을 제공해준다면 YF는 즉시 건축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정부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소년교육센터(가칭) 건립에 대한 협력을 재차 요청했다.

아도 대통령은 "훌륭한 제안"이라며 "장관을 통해 돕겠다. 모든 일이 순

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양측은 추후 마인드교육을 통한 우호 교류와 협력 의지를 다졌다.

박 목사의 가나 방문은 현지 언론에서 집중 조명됐다. 박 목사는 이날 아크라 공항 귀빈실 로비에서 현지 국영방송국인 GBC(GTV), Light TV와 인터뷰했다. 각 언론사는 가나 방문 목적과 청소년,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 질의했다.

박 목사는 아도 대통령의 초대로 가나에 방문했으며, 무엇보다 가나에 예수의 사랑을 전하러 왔다고 답했다.

가나 방문 일정 중 사회지도층과 기독교지도자들과의 면담도 잇따라 진행됐다.

박 목사는 이날 현지시간 오후 1시 개 아크라 팔리스 호텔에서 YF 수석 고문인 조나 그롭 사무엘 예손 조나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조나 회장은 가나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온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고, 박 목사는 앞으로 YF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베냉, 마인드교육 확대 방안 논의

박 목사는 두번째 방문국으로 베냉을 찾았다. 8년 만에 이뤄진 베냉에서의 일정(6-7일)은 베냉 국영방송 ORTB 특별 토크쇼, 부통령·장관 면담 등이 펼쳐졌다.

1시간 가량 진행된 국영방송 ORTB 특별 토크쇼에서 인터뷰 진행자는 박 목사에게 YF 설립 목적과 베냉에서 개최하는 그랜드 컨퍼런스 주제에 대해 질문했다.

박 목사는 "한 미국 비행 청소년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다"며 "이제 전 세계 청소년을 선도하면서 복된 소식을 전하러 전 세계를 다닌다"고 말했다.

이어 쿠아보 이브 사비(Kouaro Yves CHABI) 중등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이 진행됐다. 쿠아보 이브 사비 중등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중요한 일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개최한 세계청소년부장관포럼에 기술고문을 파견했다. 마인드교육의 필요성을 깨달은 교육부는 YF와 MOU를 맺고 마인드교육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YF 설립자이자 기쁜소식선교회 강남교회 담임목사인 박옥수 목사가 최근 서부아프리카 3개국 해외순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은 박 목사가 지난 3월4일 가나 대통령궁에서 아쿠포 아도(Nana Akufo Addo) 가나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마인드교육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YF 제공



박 목사가 베냉 방문 일정 중 베냉 부통령 관저에서 마리암 사이 탈라타 부통령과 면담을 갖고 마인드교육 도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YF 제공

사비 장관은 "청소년 교육 활동은 우리 담당인데 YF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아프리카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미래가 밝은 대륙"이라며 "조금만 교육해 주면 청소년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마인드교육을 확대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사비 장관은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베냉 YF와 MOU를 맺었다"며 "교육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오는 7월 한국 월드컵 캠프와 세계청소년부장관포럼에 참석할 것을 약속했다.

박 목사는 7일 마리암 사이 탈라타(Mariam CHABI TALATA) 부통령과 베냉 부통령 관저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면담에서 청소년을 위한 마인드교육 도입 정부 차원의 협력 방

안에 대해 논의했다.

탈라타 부통령은 "YF가 청소년들에게 사교력, 자제력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변화될 줄 믿는다"고 말했다.

부통령은 앞으로의 협력을 약속하며 "대통령께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서 함께 일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께서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중고등학교를 건립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추후 한국을 찾아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부통령 면담을 통해 베냉 정부와의 교류를 시작함으로써 베냉 청소년과 국민들을 위한 마인드교육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코트디부아르, 청소년 사업 상호 협력 약속

7일 코트디부아르 일정에서는 장관과의 만찬, 라이베리아 대통령 면담, 기독교지도자연합(CLIF) 컨퍼런스가 추진됐다.

이날 현지시간 오후 5시 조로비 발로 역량강화정부패퇴치부 장관의 자택에서 만찬이 펼쳐졌다. 발로 장관은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의 '새로운 코트디부아르 사람이 되라' 슬로건을 따라 나라 개혁을 추진하는 데 가장 적합한 교육이 YF 마인드교육이라고 확신했다.

2017년 11월 7일 간 한국을 방문한 후 YF 마인드교육을 코트디부아르 교육의 톨모텔로 삼았다. 이후 교육부, 국방부, 청소년부 등 모든 부처를 통해 코트디부아르 전역에 마인드교육을 보급하는 데 힘써왔다.

발로 장관은 코트디부아르 청소년들과 미래의 일꾼들을 위해 YF와 상호 협력을 다졌다.

박 목사는 코트디부아르에 머무는 동안 CLF 컨퍼런스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컨퍼런스는 기독교지도자 3천여명이 참석하며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컨퍼런스 주강사로 나선 박 목사는 성경을 근거로 '의롭게 됨'에 대해 설교했다.

박 목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됐다. 여러분은 죄를 지으니깐 죄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됐다고 하셨다. 내 생각이 어떠한지 성경 말씀을 믿자"고 전했다.

행사 후 박 목사는 코트디부아르 국영방송국 RTI와의 인터뷰에서 "교리와 교파를 넘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롭게 되는 복음으로 코트디부아르가 새롭게 변화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트디부아르 일정 중 조셉 뉴마보카이(Joseph Nyumah Boaka) 라이베리아 대통령과의 면담이 급성 사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면담은 YF와 교류관계를 이어오던 라이베리아 국방부 장관 대행이 대통령과 함께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해 있던 차에 당일 CLF 컨퍼런스에 참가하면서 이뤄졌다.

박 목사는 면담을 통해 마인드교육 추진 현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정부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보아카이 대통령은 "라이베리아는 내전으로 고아들이 많은데, 이들이 커서 또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YF가 적합한 단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리더스포럼 16일 열린다

오후 2시 광주문화체육센터

박옥수 목사와 함께하는 2024 광주전남리더스포럼이 오는 16일 오후 2시 광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기쁜소식선교회 총회장 인사말 △특별공연 △박옥수 목사 초청 특별강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국기독교지도자연합(KCA) 포럼에 남미(코스타리카·도미니카공화국·멕시코 등) 3개국이 CLIF와 함께 전 세계 복음전파과 미국 CLIF 월드컨퍼런스를 방문

한 한국의 박옥수 목사를 연사로 초대한다.

박 목사는 특별 강연에서 남미 3개국 순방 결과와 CLF 월드컨퍼런스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한편, CLF는 2017년 3월 미국 뉴욕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모토로 세계 기독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100여 개국에서 기독교교단과 교류하고 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의 뜻을 같이한 82만여명의 목회자들이 CLIF와 함께 전 세계 복음전파에 함께하고 있다.



박 목사와 일행들은 지난 3월7일 코트디부아르 조로비 발로 역량강화정부패퇴치부 장관의 자택에서 만찬을 갖고 YF마인드교육 확대 시행을 위한 상호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YF 제공

“죄에서 벗어나”

강사 박옥수 목사

- 뉴욕 Good News Theology School 설립자
- 125개국 662개 방송사 중계한 성경세미나 주강사
- 미국 기독교방송 CTN 방송설교공로
- 신명서적 67권 출간

그라시아스합창단 찬양 및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

2024년 5월 15일(수)-17일(금) / 밤 7시 30분 낮 10시 30분

광주문화체육센터(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46)

주최 | KCA 한국기독교연합 | 주관 | 기쁜소식선교회 | 문의 | 062-941-8503 | www.bibleseminar.kr | YouTube | [굿뉴스티비](#) | 생중계